

# 적자 폭 줄인 한전...“전기요금 5원 올리면 올해 흑자 예상”

###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조원...3분기 이어 연속 흑자 전환 기대 연간 5조8270억원 적자 전망...전년비 32조원의 80% 대폭 감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2분기 이래 9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 및 올해 한전의 최우선 과제인 재무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내세운 한전이 1kWh 당 5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

우, 분기별 연속 흑자는 물론 연간 흑자 전환도 예상하고 있다. 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2023년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전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자 해소와 함께 재무위기에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연간 5조8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2년 연간 32조655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8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데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와 전기요금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널뛰던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 여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인하 결정권을 지닌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2년 동안 역마진 구조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전력 판매·구입

단가 차이가 1kWh당 -70.75원을 기록하며 전기를 팔면 팔 수록 한전은 수십조 단위의 적자가 쌓여왔다. 하지만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7.86달러로 전성 직전 대비 50% 이상 폭등했으나, 현재 배럴당 70-80달러 선까지 하락한 반면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44.1%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역마진 구조 해소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누적기준 전력 판매·구입단가 차이가 0.8원을 기록하면서 2년만에 역마진 구조 완전 해소까지 이뤄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한전의 적자폭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을 재무위기 해소의 긍정적인 신호

로 보고 있다. 한전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4조9346억원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7조원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을 1kWh 당 5원 이상 인상할 시 올해 역시 한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1kWh당 5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한전이 전년 보다 7% 증가한 94조1844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2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력거래소, 설 연휴 대비 수급 상황 특별 점검

### 정동희 이사장 제주본부 방문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5일 정동희 이사장이 제주본부를 방문해 제주지역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업무에 임하는 제주본부 전력관제와 시설보안 담당 직원을 찾아 격려했다. 정 이사장은 특별 점검에서 "이번 설 연휴 동안 기상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민들의 생활 및 안전을 위해 연휴 기간 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제주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중앙 급전설비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취약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일 제주본부를 방문해 제주지역 전력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 한전 '산불 조기대응시스템' 전국 확대

### 비용 절감·산불 탐지 정확도 높아 기술이전 등 해외수출 활로 개척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인공지능(AI) 전력망 시스템을 통한 '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은 송전 첩탐과 기지국 등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촬영된 영상의 AI 분석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기 탐지 기술이다. 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은 한전이 구축한 인프라와 플랫폼들을 활용해 기존에 구축된 산불 관제

CCTV보다 투자비는 50% 이상 절감하는 반면, 99%에 달하는 산불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 한전은 조기대응시스템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대규모 정전 가능성 예방 등 산불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은 건조한 겨울·봄철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시스템 확대 후 성과분석과 제품화를 통해 산불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컨설팅 등 해외수출 활로까지 개척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5일 이웃돕기 희망의 성금 300만원을 나주시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KREI 임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을 통해 성금을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지

역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두봉 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정성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

## 농어촌공사, 은퇴농 노후생활 보장...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

### 65세 이상 79세 이하 참여자 모집 1ha 당 매월 50만원...최대 4ha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자를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최대 84세 까지 매월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 중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해야 한다.

또 소유농지 중 1000㎡ 미만 이의 농지를 모두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자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농지이양은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고, 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매도방식으로 농지를 이양할 경우 매도대금과 1ha 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에는 '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고,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농지가 매도된다. 이 때 농지를 이양한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 매월 1ha 당 4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며 "더 많은 은퇴 고령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